인천주보

제2464호 2017년 7월 2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교구장 사목교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루카 22,19)

라파엘로, 〈성모대관〉(일부), 1502–03년, 캔버스에 유채, 267x163cm, 바티칸 회화관, 로마

제1독서 2역대 24,18–22

화답송 시편 31(30),3ㄷㄹ–4,6과 7ㄴ과 8ㄱ.17과 21ㄱㄴ(◎ 6ㄱ 참조)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제2독서 로마 5,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마태 10,17–2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 교황님을 위한 기도는 6면에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인천주보를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인천교구 DIOCESE OF INCHEON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주님 테라피

요즘 우리는 '스트레스'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늘 완벽을 추구하다보니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삶의 환경에서 현대인들은 크든 작든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 또한 높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이 파괴되고 생체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작게는 피로와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크게는 질병에 이르는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와 로고 테라피, 컬러 테라피 등 다양한 치료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컬러 테라피(색채 치료)는 '컬러(색)'와 '테라피(치료)'의 합성어로 색이 가진 힘과 성질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키우는 요법입니다. 컬러 테라피의 기본원리는 색채에 따른 특성을 활용하여 인공적인 광선을 몸에 비춤으로 파괴된 생체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신체안의 혈압과 체온을 상승시켜 원기를 불어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혈이나 우울증에 도움을 줍니다. 오렌지색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색으로 복통이나 변비, 알코올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오늘 미사를 드리는 사제들의 제의는 빨간색입니다. 사제들이 입는 제의의 색도 컬러 테라피에 나오는 여러 색처럼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 빨간색은 피와 사랑 그리고 열정을 상징하지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는 열여섯 살에 우리나라를 떠나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고, 사제생활 1년 만인 스물여섯 살의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한없이 붉게 타올랐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용광로의 불꽃과도 같은 생애를 마치신 성인을 기억하며 내 마음의 색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붉은 색처럼 정열을 지닌 붉은 마음과 열정적인 사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랑은 희생과 실천이 선행될 때 진실한 사랑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진실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붉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에 몸 바쳤던 순교 성인들의 희생과 붉은 피가 바로 오늘 사제들의 빨간색 제의와 영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짧은 인생을 살았더라도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김대건 신부님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스물여섯 살. 꽃다운 나이에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급급한 우리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가 지닌 마음의 색은 무슨 색인지, 주님을 향한 내 열정은 얼마나 뜨거운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주보

서상현 헨리코 신부 | 구월1동 성당 보좌

사도 성 토마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성 토마스(Thomas, 1세기경)는 갈릴래아 출신으로 쌍둥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러나 성 토마스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있지 않다. 다만, 요한복음서에서 성인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가 등장한다. 성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죽음에서 되살리기 위해 베타니아로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나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요한 11,16)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 또한 최후의 만찬 때에도 다른 사도들은 비통에 잠겨 침묵하고 있었으나, 성 토마스만이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요한 14,5)라고 솔직히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요한 20,25) 하고 말했다.

4세기부터 전해지는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 토마스는 왕궁을 지어달라는 인도의 초청을 받은 후, 인도에서 목수로 일하며 선교를 했으며, 그곳에서 군다파르라는 이름을 가진 왕과 많은 사람을 개종시킨 후, 칼과 창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한다. 따라서 성 토마스의 도상은 건축용 직각자를 들고 있거나, 긴 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도 표현된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 토마스 사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 손을 넣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 토마스의 의심은 성모 마리아의 승천까지 이어진다.

르네상스 거장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1483-1520)가 페루지아 지방에 머물던 시기에 성 프란체스코 알 몬테 성당을 위해 성모님의 대관 장면을 제작했다. 그림은 성모 마리아가 임종 후 하늘에서 천상 모후의 관을 예수님께 받는 장면이다. 작품의 상부는 성모가 자기의 아들에게 왕관을 받고 있는 장면이고, 하부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모의 빈 무덤을 에워싸고 서 있는 장면이다. 화가는 하늘로 오른 성모의 경이로운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 빈 무덤을 백합과 장미꽃으로 장식했다. 백합은 마리아의 순결을 뜻하고, 장미는 그녀의 고통과 사랑을 의미한다.

사도들은 마리아의 죽음에 몹시 슬퍼하였으나, 하늘에 올라 천상의 관을 받는 광경을 지켜보던 그들의 모습에는 경외감이 감돈다. 지상에 남아 있는 사도들의 표정을 보면 이 놀라운 사건에 우왕좌왕하는 기색보다는 라파엘로의 색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색조로 인해 매우 온화하고 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도들은 지상 생활을 마친 뒤 성모와 같이 영원한 천상의 공간으로 들어가길 염원하는 듯 그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

그림 가운데에 있는 인물은 사도 성 토마스로 손에 허리띠를 들고 있다. 13세기에 저술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고서(古書) 『황금 전설』에 의하면, 성 토마스는 사도들 가운데 마리아의 임종 당시 맨 마지막으로 도착한 인물이었다. 이미 성모 마리아는 무덤으로 옮겨져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하늘로 올려진 상태였고, 그것을 보지 못한 성 토마스는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에 의해 하늘로 승천했음에 대한 징표로 성모 마리아는 지상에서 두르고 다녔던 깨끗한 허리띠를 그대로 성 토마스의 손에 떨어뜨린다. 그제야 그는 비로소 진실로 성모의 몸과 영혼이 하늘로 올려졌음을 깨닫게 된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 인천쟊

축 일	7월 3일
수호성인	건축가, 목수, 건축업자, 측량사, 조각가
상 징	직각자, 창, 허리띠

숨·고·르·기

윤인복 소화 데레사 교수 |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그리스도교미술학과

빵 하나는 어디 갔을까?

갈릴래아 호숫가에 가면 '오병이어 성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성당의 제대입니다. 제대 아래 바위가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만든 지 1200년이 지난 오래된 모자이크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성합에 빵이 5개가 아니라 4개뿐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순례했을 때 그곳을 설명해 주시던 분은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미사 때 이 제대 위에서 나머지 빵 하나가 축성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모자이크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나머지 하나의 빵이라면서, 그분은 이 사실을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체는 쪼개지고 나누어져 세상 모든 믿는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쪼개지고 나누어질수록 더 풍성해지는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성체를 모시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 자신도 성체가 되고, 자신을 쪼개고 나누어 다른 이들에게 먹을 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듯이 그 사랑을 본받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빠서, 내 코가 석자라서, 다음에 내가 잘 살게 되면 그 때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꼭 나누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신비를 정말로 모르는 것입니다. 10에서 5를 빼면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5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사랑이 10이라고 할 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5만큼을 내어준다면 얼마만큼의 사랑이 남을까요? 5만큼의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5를 내어주어도 여전히 10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15가 남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신비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누구라도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이는 없습니다.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나누는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을 나누기에 앞서서 계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그리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값싼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쪼개지고 나누어져야 할 성체성사의 신비를 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 이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닮은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루카 6,38) 주실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삶, 그것이 성체성사를 살아가는 삶이요,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인천쟈

이재학 안티모 신부 | 청소년사목국 국장 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사무총장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신앙과 삶의 지표

솔뫼성지

솔뫼성지는 '소나무가 뫼를 이루고 있다'하여 순우리말로 '솔뫼'라 이름 붙여진 곳으로, 한국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탄생한 장소이다.

증조할아버지 복자 김진후(비오, 1814년 해미에서 순교), 작은할아버지 복자 김종한(안드레아, 1816년 대구 관덕정에서 순교), 아버지 성 김제준(이냐시오, 1839년 서울 서소문 밖에서 순교), 당고모 성녀 김 데레사(1840년 서울 포청에서 순교) 그리고 성 김대건 신부님(1846년 서울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 등 4대의 순교자가 살던 곳으로, 김 신부님의 신앙과 삶의 지표가 싹튼 장소로, '한국의 베들레헴'이라 불리기도 한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이곳(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당시에는 면천 고을 솔뫼)에서 1821년 8월 21일 태어났다. 그러나 이미 증조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가 순교한 천주학 집안이어서 가세는 기울대로 기울었고, 또 어느 때 새로운 박해가 닥칠지 몰라 할아버지 김택현은 대건이 7살 되던 해에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 '골배마실'이라는 산골로 이사하였다. 김대건 소년은 그곳에서 15세가 된 1836년에 모방 신부님에 의해 신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이후 최양업(토마스)과 최방제(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에서 유학하여 신학을 공부했고, 1845년 8월17일 상해(上海) 진쟈상(金家巷:김가항) 성당에서 故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사제서품을 받았다.

1845년 조선에 입국한 김 신부님은 선교활동에 힘쓰는 한편 외국 선교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힘쓰다 1846년 6월5일 순위도 앞바다에서 체포되었고 9월16일 서울 한강변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언도받고 순교하였다. 사제생활 13개월 만의 일이었다. 1925년 7월5일 복자품에, 1984년 5월6일 가톨릭교회의 성인품에 올려졌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조선 최초의 방인사제(산이나 들에 숨어서 속세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주교와 신부)이며 현실을 직시하고 진리를 외치던 선각자였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양학 유학자이며 조선의 최장거리 여행자이고 연평도에서 상해까지 항해한 최초의 서해 항로 개척자이기도 하다. 1845년 초 조선전도를 만들었으며, 저서로는 21편의 서한이 있고, 한국 교회사에 관한 비망록 등이 있다. 1906년에 당시 합덕 성당의 크램프 신부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김 신부님의 생가터를 고증하였고, 1946년에 김대건 신부의 순교 100주년을 맞아 순교 기념비를 세우면서 성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 529호로 지정된 솔뫼성지의 정식 명칭은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 신부 유적'이다. 1만 5천여 평의 소나무 군락지와 더불어 김대건 신부님의 생가가 복원되었고, 기념관과 성당, 솔뫼 아레나(야외공연장 겸 야외성당), 순례자 식당, 그리고 넓은 주차장을 갖춘 채, 광활한 내포평야의 한복판에 자리하면서 한국천주교회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있다. 인천쟤

자료 제공 http://www.solmoe.or.kr
성지 사무실 041-362-5021

사제성화의 날 및 금경축 축하미사 거행

교구는 예수 성심 대축일인 23일(금) 오전 11시에 답동주교좌성당에서 사제 성화의 날 미사를 봉헌하고, 올해 사제수품 50주년을 맞는 박성규 베네딕도 신부과 김상용 힐라리오 신부의 금경축 축하식을 거행했다.

성체성사의 해를 지내는 교구는 미사에 앞서 성체조배를 실시했으며, 정신철 주교와 특별히 박성규 신부, 김상용 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했다.

박성규 신부는 강론에서 동기이자 2004년에 선종하신 故 강성욱 마태오 신부를 기억하며 그리움을 표하고, 은퇴사제로서 삶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바치며 예수님, 성모님과 요셉성인과 성가정을 이루며 기쁘게 살아가는 생활을 전했다. 또한 지금처럼 사제의 삶을 즐기고, 자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금경축을 축하하는 모든 사제들과 교구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정신철 주교는 금경축을 맞은 신부들에게 감사와 축하인사와 함께, 교구 초대 교구장이신 나 길모 주교의 축하메세지를 전했다. 금경축을 맞은 사제는 존재만으로도 교회와 후배사제들에게 큰 힘과 본보기가 된다며 영육간의 건강을 빌며 교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미사에 이어 금경축 축하연이 가톨릭 사회사목센터 4층 대강당에서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단체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교구 홍보기자 문영근 안드레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인천지방경찰청의 안내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17,040건이며, 그 피해액은 1,468억원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46.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연루, 개인정보 유출을 이야기하며 현금이체 요구
2. 금융기관 사칭하여 현금 인출 후 전달 혹은 세탁기 등에 보관 요구
3. 저렴한 대출 이자로 갈아타게 해준다며 현금 입금을 요구

※경찰청(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상담바랍니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재혼교육 '또 하나의 우리' 실시

교구법원(법원장=정광웅 신부)과 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정광웅 신부)는 지난 24일(토) 오전 10시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재혼교육 '또 하나의 우리'를 진행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재혼가정이 견고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한국전환기가정센터포럼 강희남 대표가 경제문제와 부부중심의 애정관계, 재혼 후 삶의 만족도 알아보기에 대해 17시까지 강의했다.

정광웅 신부는 초혼과 달리 복합적인 가족구조로 이루어진 재혼가정이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이 꼭 필요하기에, 일정을 정례화시켜 앞으로도 많은 재혼가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9월 23일(토) 오전 10시에 부부중심의 애정관계를 주제로 집단토론과 상담형식의 재혼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황님을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의 목자요 임금이신 하느님,
친히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를
거룩한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교황 프란치스코가 말과 모범으로
신자들을 보살피다가
맡은 양 무리와 함께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인천교구 성모 순례지(성모당) 조성 및 봉헌 모금 방법

인천교구 성모 순례지(성모당) 조성 기금 마련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와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 **일반후원 25만원 / 우수후원 100만원 / 특별후원 1,000만원**
- **현(現) 모금현황: 796,389,491원** (6월 25일자)
  (사제특별기금 233,712,000 포함)

· **계좌: 신협 131-018-148137 〈예금주: 천주교 인천교구(성모당)〉**

※ 성모당 완공 시, 봉헌판에 이름과 세례명을 올릴 예정이오니, 입금시 이름과 세례명을 기재해 주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관리국 765-6975 / 6982, 사무처 765-6961 / 6943

교 육 | 피 정

❖'성체성사의 해' 맞이 1일 대피정
주제: "성체의 힘으로~"
때 · 곳: 7/15(토) 9~16시(파견미사), 부평4동 성당
강사: 1부- 한상우 신부(구속주회)
2부- 신상현 수사(꽃동네,세계성령쇄신위원회이사)
미사: 손광배 신부(인천성령쇄신담당), 정병덕 신부
☎ 032-527-2311, 010-3707-0238(기도회장)

❖전례꽃꽂이 7월 월례교육
때 · 곳: 7/6(목) 14시, 송림동 교구청내 박순집홀(구.급식소)
데몬: 성모 승천 대축일 / 미사집전: 이현수 베드로 신부

❖21차 청년 성령 안의 새 생활 피정
때: 7/21(금)~23(주일) / 대상: 청년 누구나
곳: 심조이바르바라 피정의 집(구.박문여고)
참가비: 10만원 ☎ 010-8255-8845 프네우마

❖예수회센터 영성강좌 (9월 개강)
❈그리스도인의 대화법-비폭력 대화(신설)
때: 매주(화) 10~12시 / 강사: 이윤정
❈신앙의 성숙을 돕는「성인 탐구」(신설)
때: 매주(목) 14~16시 / 지도: 김민 신부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3일: 7/7(금)~9(주일), 8/4(금)~6(주일) / 시작: 17:30
4박5일: 7/10(월)~14(금), 8/21(월)~25(금) / 시작: 14시
8박9일: 7/10(월)~18(화), 8/7(월)~15(화) / 시작: 14시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기본1,2과정: 7/7(금)~9(주일) / 시작: 15시
☎ 031-946-2337~8 www.jesumaum.org

❖영성학교(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때: 7/5~26 매주(수) 14~16시
곳: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당 / 회비: 4만원
강사: 허석훈 신부, 김창훈 신부, 남상근 신부, 홍성만 신부
☎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젊은이기도모임(까르미스 톡!톡!)
때 · 곳: 7/5(수), 19(수) 19:30, 전교가르멜수녀원
☎ 032-542-2989, 010-6365-2989
※성소식별을 위한 영적동반 가능(35세이하 미혼여성 문의)

❖음악과 함께 하는 찬양피정
때: 매월 첫째, 셋째주(금) 19시(미사: 21시)
곳: 교구 가톨릭 음악원 ☎ 010-8943-2641
※본당 요청시 무료 순회 피정

❖예수고난회 명상의집 8월피정
❈8월피정: 8/5, 19(토) / 주제: 마음이 멈춘 그 순간
❈여름대침묵피정: 1차- 7/24(월)~27(목)
2차- 7/31(월)~8/3(목), 3차- 8/7(월)~10(목)
☎ 02-990-1004

❖젊은이 피정(서울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주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대상: 젊은이 미혼 여성 / 회비: 6만원
때: 7/21(금)~23(주일) / 선착순: 30명
곳: 상지 피정의 집 ☎ 010-6259-6364

❖한비야와 함께 걷는 한라산 둘레길 피정
때: 8/16(수)~18(금) / 참가비: 30만원(항공료제외)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선착순 접수
☎ 064-796-9181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 평화 · 역사순례, 올레길 · 오름 트레킹, 미사(성무일도), 나눔
때: 7/22(토)~24(월), 7/28(금)~30(주일), 8/1(화)~3(목), 8/5(토)~7(월), 8/9(수)~11(금), 8/13(주일)~16(수), 8/20(주일)~22(화)
☎ 02-773-1463, 064-756-6009

❖살레시오회 여름 성소 캠프
때 · 곳: 7/21(금)~23(주일), 충남 태안 살레시오 피정 센터
대상: 중, 고등, 대학생, 일반인(만 33세) / 참가비: 3만원
☎ 010-7427-4627, 010-3894-1332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 피정(구속주회)
내용: 기도, 강의, 미사, 고해성사
때 · 곳: 7/6(목) 13:30, 부천가톨릭교육관
☎ 02-598-1312, 010-9239-4590 구속주회 신부

❖예수회 성소식별피정 및 수련회
때: 7/13(목)~16(주일), 16(주일)~19(수)
곳: 여주 프란치스코 수녀회 피정의집
☎ 010-2874-9203 vocation.jesuits.kr

❖낙태 후 화해피정(선착순10명, 무료)
때 · 곳: 7/14(금)~16(주일) 2박3일, 성빈센트환경마을
☎ 010-7440-8687 착한목자수녀회

미 사 | 행 사

❖박성규 베네딕도 신부님 금경축미사
때 · 곳: 7/11(화) 11시, 구월1동 성당
☎ 032-465-7540

❖월례수요미사 '사람' ☎ 765-6970
때 · 곳: 7/5(수) 19:30, 노동자센터 3층(동암)
주제: 인디언 플룻 달빛음악회
공연: 봄눈별(인디언 플룻 연주가)

❖이주사목부 7월 후원회미사
때 · 곳: 7/4(화) 10시, 만수6동 성당
※많은 참석바랍니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군대) 월례미사
때: 7/24(월) 10시 셀기도, 11시 미사
곳: 가톨릭 사회사목센터(구.답동교구청) 지하강당
※7월은 넷째주로 변경 ☎ 010-4375-3828

❖장애인연합회 월례미사
때 · 곳: 7/8(토) 11시, 가톨릭 사회사목센터 401호
☎ 010-9130-8379

❖운전기사사도회 7월 월례미사
때: 7/7(금) 11시, 가톨릭사회사목센터 지하강당
※김포, 강화, 시흥지구에서 개인택시하시는 교우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010-6450-1987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 미사
때: 매월 첫째주(금) 7/7, 8/4 11시
곳: 주안1동 성당 / 미사, 고해성사
☎ 031-884-0533

모 집 | 일 반

❖갑곶순교성지 성가대 단원(소프라노, 테너) 모집
연습일정: 매월 첫째, 셋째주(월) 20시, 오류동 성당
활동일정: 매월 넷째주(토) 17시(갑곶순교성지 미사봉헌)
☎ 010-7752-9705

❖새롭게 창단한 답동성당 칸타테 성가대 단원 모집
대상: 65세 이하 여성 가톨릭 신자
☎ 032-762-7613 답동 주교좌성당 사무실

❖무료 노동상담
임금 체불,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등 ☎ 032-502-3009, 032-679-1308

❖동유럽성지순례자 모집
주관: 교구 청소년사목국장 이재학 안티모 신부
때: 10/6(금)~17(화), 11박 12일 / 비용: 390만원
일정: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폴란드-리투아니아(뮌헨-알퇴팅-비엔나-부다페스트-크라쿠프-바도비체-바르샤바-카우나스-샤울레이)
☎ 032-765-6964 청소년사목국

❖바티칸 특별전시 개막식 참가 순례단 1기 모집
※서울대교구가 주관하는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서의 '한국천주교회 230년(가제)'의 전시개막미사(9/9(토))와 염수정추기경님 명의본당에서의 한인순례자들을 위한 미사(9/10(주일))에 함께 할 특별한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때: 9/2(토)~12(화), 10박 11일
지역: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 일정
경비: 404만원(공동경비별도) ☎ 02-3142-4504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무료)
대상: 인천시내 중 · 고등학생 80명(선착순)
때 · 곳: 7/28(금) 14시, 공연예술체험(고등)/인천시립극단
8/7(월) 14시, 법정체험(중등)/꿈키움센터
☎ 032-762-5642 인천진로교육센터

❖팝재즈 콘서트가 있는 제27차 청소년영성포럼
주제: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플랫폼' 가정
때: 7/8(주일) 13:30~19:30 / Daum 카페 우아청 참조
곳: 삼성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7호 / 참가비: 2만원
☎ 02-832-2654, 010-3883-7004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선착순 100명)
※취업과 무관하며 봉사를 위한 교육입니다.
때: 8/9(수)~11(금), 9~17시
곳: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성요셉관 5층 대강당
교육비: 5만원 (우리 1002-554-540926 / 이현숙), 중식 및 교재비 포함 전화접수 ☎ 032-340-2435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때: 7/3(월)부터 10주간 ☎ 02-338-3793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아카데미

❖광주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청소년캠프: 1차-7/22(토), 2차-7/29(4주)
대학팀: 2차-8/26(토)(8주이상)
가족팀: 출발-7/22(토), 29(토)(4주이상)
특징: 영어연수, 체험활동, 해외봉사
☎ 070-4365-7297 국제교류팀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여름진학캠프
때: 7/25(화)~27(목), 2박 3일
대상: 본교 진학에 관심 있는 초6~중2
☎ 054-338-0530

성소모임

수 도 회 명	때 / 곳	문 의
한국성모의 자애수녀회	7/16(금) 15시 대구 계산서원, 칠곡 본원	010-3113-6219